

고전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

- 근대적 변화 양상의 검토를 통해

조희정**

〈차 례〉

- I. 서론
- II. 현상으로서의 '리터러시'
- III. 고전리터러시 현상의 변화
 - 1. 고전 리터러시
 - 2. 고전문학 리터러시로 전이
 - 3. 고전문학 리터러시의 화석화
- IV.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
- 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고전 리터러시(Literacy)¹⁾의 근대적 변이 양상을 추적함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3-AM2033). 또한 이 논문은 2004년도 7월 10일 국어교육학회의 기획 주제 '리터러시와 국어교육' 중 하나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논의를 보강하도록 도와주신 한창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본 논문에서는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번역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 리터러

으로써 국어교육의 핵심 목표로 부상한 리터러시 개념을 진단하고 이로부터 고전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최근 리터러시는 국어교육의 중요 목표를 담아내는 핵심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도 일련의 성과물을 축적해가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리터러시가 담당해야 할 새로운 몫이 있다는 가정 하에 학회 기획 주제(박영목, 2003; 김명순, 2003; 박수자, 2003)로 선정되어 국어교육 연구자 집단의 공통의 화두로 제시된 적도 있었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개념인 만큼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망은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문식성 일반'(노명완·이차숙, 2002)), '비판적 문식성'(이재기, 2001), '문화적 문식성'(박인기, 2002), '다중문식성'(최인자, 2002), '비평적 문식성'(임경순, 2002), '생태학적 관점의 읽기와 쓰기'(곽춘옥, 2003) 등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은 '리터러시'의 의미망이 확장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어교육의 핵심 목표로 자리 잡아가는 리터러시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국어교육의 외연을 풍부하게 하며 동시에 내포를 탄실하게 하는 연구사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활발한 논의 속에서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혹은 리터러시 전반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던 동양의 리터러시로 눈을 돌리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실로 의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비판은 일찌감치 조희정(2002)에 의해 제출된 바 있다. 조희정은 서양의 리터러시 개념에만 의존하는 리터러시 연구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뒤따른 것은 아니다.

본디 리터러시의 개념은 "문식성에 개입하는 요소,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 등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며

시에 대한 다양한 번역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의미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드러내지만 학회 기획 주제에서 '리터러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번역어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자 함이다.

“문식성에 대한 연구는 문식성의 다층적 측면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과의 상호교섭적 측면을 밝히는 데 주력하여 왔다”는 박영목의 지적(2003: 2-3)처럼 리터러시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개념이 아니다. 리터러시의 속성 자체가 이미 그만큼 다층적이며 그것의 대생적 근원인 사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리터러시’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하여 ‘리터러시’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점에서 새삼 국어교육학계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리터러시 개념의 서구적 편향성을 다시 지적하며 이러한 접근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의 리터러시 개념에만 의존할 경우, 리터러시 현상에 대한 서구적 해석에만 골몰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리터러시 철학과 그것의 수행 과정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독서학회에서 기획한 ‘전통 독서사 연구’²⁾라거나 혹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 등의 연구 성과³⁾는 ‘리터러시’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교적 한국 사회의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충실한 연구사적 실천을 보여준다. 전자는 리터러시의 중요 국면 중 하나인 독서에 대한 사적 연구라는 점에서, 후자는 비록 근대 계몽기 이후만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국어교육에 대한 통사적 시각 속에서 현재를 조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문화사적 관점에서 근대 이후 한국의 독서 문화의 변화 양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련의 움직임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⁴⁾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리터러시 현상을 추적함으로써 리터러시의 다양한 모습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리터러시 문

2) 김영(2003), 김왕규(2003), 김종철(2003), 진재교(2003) 참조.

3) 지금까지 발표된 결과물은 홈페이지(www.edukorean.org)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이기훈(2001), 최태원(2001), 권보드래(2003), 천정환(2003) 참조.

제에 접근하기 위한 선행적 논의로서 현상으로는 존재하되, 개념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 중세의 리터러시 현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그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3장에서는 리터러시 현상이 변화하는 대략의 모습을 거칠게나마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리터러시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전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현상으로서의 ‘리터러시’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할 것이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식성(文識性, literacy) : 의사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 즉 모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여기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란 자소(字素)를 음소(音素)로, 음소를 자소로 바꾸는 최소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의 활용에 대한 심적 경향이나 사고 방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문자 언어로 된 메시지를 단순히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메시지를 생성해 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인용문은 『국어교육학사전』의 ‘문식성’ 항목에서 발췌한 것이다. 리터러시의 기본 속성으로 거론하고 있는 요소는 1) 의사소통, 2) 모(국)어 3) 읽기와 쓰기의 활용에 대한 심적 경향이나 사고 방식이다. 이와 같은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는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리터러시 보편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의도적이든 아니든 리터러시 개념의 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리터러시의 기원은 라틴어 ‘litteratus’이지만 이 용어가 『국어교육학사전』과 같은 현대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서구에

서도 1880년대 이후의 일이다.(이차숙, 1999) 김명순(2003)은 서구에서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현대적인 의미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이를 겪은 리터러시 개념은 우리 사회에 수입되어 국어교육이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1990년대 이후⁵⁾ 국어교육학의 핵심 학술 용어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리터러시가 근대 서양에서 발현되어 수입된 개념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논문이 문제삼는 바가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수입된 학문 용어임을 시비하자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하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개념의 수입과 함께 그 개념으로 포착될 수 있는 현상들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새삼 주목받았다는 점이다. 개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분산되고 산만한 현상으로만 존재했기에 그것의 존재성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현상들이 새삼 존재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결국 구도는 이렇게 그려가야 한다. '리터러시'라는 학술 용어가 비교적 최근에 국어교육의 핵심 목표를 대표하는 용어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해방 이후 국어교육은 공교육의 틀 속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실천적 목표로 삼고 있었다. 또한 그보다도 앞서 근대계몽기부터 한글로 '읽고 쓰는 능력'이 새삼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념에 앞서 현상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리터러시' 개념을 통해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던 시기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대체로 근대계몽기를 그 시원적(始原的) 시기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리터러시 현상을 검토하는 시원적 시기로 근대계몽기를 설정하는 것은 '근대' 10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엄청난 변화⁷⁾에 기인한 바가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표기 문자가 대표적인 근거로 거론된다.

5) 국어교육 연구가 학문적 담론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일단은 조희정(2004a)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국어교육사의 대표적 연구 성과인 박봉배(1987)에서도 1885년을 기점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7) 근대화, 일제의 침략, 식민지, 해방, 분단 등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

국어교육사와 관련한 연구가 일천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최현섭 외(2000: 142)에서는 “국어는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와 조선 초에 만든 한글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으로 한정하고, 국어교육의 개념도 바로 이런 국어를 의도적·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이란 뜻으로 개념 범주를 잡기로 한다”고 간략하나마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서 리터러시를 “모(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개념 규정하였던 것처럼 ‘모국어 리터러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리터러시의 개념 규정에 의거할 때, 한글로 ‘읽고 쓰는 능력’이 교육의 중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근대 계몽기야말로 우리의 리터러시 교육의 시원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라면 근대 이전 중세 사회에서 진문(眞文)으로 간주되었던 한문을 ‘읽고 쓰는 능력’은 애시당초 리터러시 영역 안에 포괄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리터러시라는 학문적 개념어는 서구 근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이지만, 개념의 부재가 곧 현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리터러시’에 접근하는 시각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실상 서양의 리터러시 개념조차도 처음 출발선상에서는 읽기 능력만을 포괄하다가 점차 쓰기 능력까지 아우르게 되었으며 이제는 말하기, 듣기, 심지어 보기까지를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는 것은 리터러시라는 개념의 의미망이 현재 진행형임을 의미하는 것⁸⁾이다.

따라서 중세 사회에 접근하는 우리의 시각은 서구 현대적 의미에 토대를 둔 리터러시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찾아 역지로 짚고 잘라 포개는 작업이나 또 나아가 서구의 개념으로 유사 현상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개념이 아닌 현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적극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⁹⁾ 또한 그 때의 현상은 서구 현대의

8) 서구에서는 Literacy과 관련하여 1980년대 두 가지 경향의 논쟁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문화적 문해력(cultural literacy)’이고, 다른 하나는 ‘문어성-구어성 이론(literacy-orality theory)’이다. Beth Daniell(1998: 176-179).

9) 비교미학적 입장에서 동서양을 비교하는 장파는 동양이 사대 그 자체를 기술하는 작업

리터러시 개념과 다소 다른 모습이었음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추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상으로서 리터러시’에 접근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소 느슨하게나마 리터러시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읽고 쓰는 능력은 중세의 교육 속에서도 중시되었던 내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국)어 리터러시가 리터러시와 등치되기 이전, 즉 모국어가 읽고 쓰기의 핵심적 매개로 부상하기 이전에도 여전히 교육의 중심 내용 중 하나는 ‘읽고 쓰기’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현상으로서 리터러시를 파악하는 것은 기능적 차원의 가치 중립적 개념으로 리터러시 능력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따라 읽고 쓰는 능력의 규정이 변화를 겪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읽고 쓰는 현상’으로서 리터러시에 접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는다. 첫째, 현상으로서 리터러시에 접근하는 것은 모(국)어 리터러시로 개념화되지 않는, 즉 모(국)어 리터러시 개념으로 포착되기 이전의 모든 ‘읽고 쓰는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야의 확대를 가져온다.

둘째, 시야의 확대는 당연히 검토 대상의 확대를 전제한다. 이로 인해 근대계몽기 이전의 ‘읽고 쓰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리터러시 현상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

셋째, 이것은 사태의 실상에도 부합하는데, 공용 문자가 한자에서 한글로 변화된 역사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리터러시 현상의 시원을 한글을 공용어로 채택하는 시점으로 한정하는 것은 피상적이며 인위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현상으로 존재했던 리터러시’는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으로서의 리터러시’와는 조금 다른 변모를 지닐 것인데, 이로부터 리터러시에

에 훨씬 익숙하다면 그에 비해 서구에서는 개념 속에서 사태를 진단하는 데 더 익숙하다고 전제한다. 장파(1999) 참조. 이러한 관점은 명확한 개념에 근거하는 근대 이후 학문의 시점으로 근대 이전 동양의 사태를 바라보고자 할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한 좀더 다양한 관점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세의 '읽고 쓰는 능력'은 서구 현대적 의미의 리터러시와는 무엇이 같고 다른 것인가? 또한 중세의 '읽고 쓰는 능력'은 근대를 거쳐오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이제 그 점을 검토하기로 하자.

Ⅲ. 고전 리터러시 현상의 변화

1. 고전 리터러시

중세의 리터러시 현상을 살펴보면 단연 문자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고전 리터러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고전 리터러시란 '고전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자의 특성상 자모 중심의 읽기 쓰기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고전을 읽고 이해하며, 고전에 기반한 글을 창작하는 것을 리터러시 능력의 기본으로 간주했다.

고전을 읽는 능력은 고전 독해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자 해독부터 시작하여 문장의 의미, 나아가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관련 고사(故事)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문맥에 대한 해석, 그것이 인용되어 의미를 결정짓거나 증폭시키는 사례에 대한 이해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반면 고전 쓰기는 새로운 고전을 창작해낸다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고전으로 회귀하는 글쓰기를 의미한다.¹⁰⁾ 논의의 근거 및 주장의 타당성을 고전으로부터 취할 때 그것의 정당성이 확보되었기에 고전 쓰기는 필연적으로 고전 읽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¹¹⁾

10) 토론자는 고전 리터러시의 고전 쓰기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중세의 글쓰기 중 '신의(新意)'와 '금문(今文)'를 배제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중세의 글쓰기에서 용사(用事)와 고문(古文)뿐만 아니라 신의와 금문 역시 중시되었던 시기가 있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야말로 용사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조희정(1999, 2002)에서 논의한 바 있다.

11) 중세 미학의 핵심인 용사(用事)는 이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전에 대한 숙지는 고전 리터러시의 전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고전 리터러시는 주로 고전에 대한 낭송, 암기, 해석 등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학습 방식에 기초하여 중세의 리터러시 습득 방식은 근대 계몽기부터 “내용 이해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입으로만 응하는(口應)¹²⁾ 비과학적인 방식”이라며 비판받았다. 더구나 이런 관점은 현대에도 여전히 계승되어 반복과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되곤 한다(이삼형 외, 2000: 70-78).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나 비판이 사태의 본질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중세의 리터러시 능력의 핵심은 ‘고전 리터러시’에 있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이는 고전 리터러시가 어떤 사회적 소용에 의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확인 가능한 지점이다. 왜냐하면 고전 리터러시는 고전의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자체에 함몰되었던 경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자 그 자체에 침잠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발언이 중세를 통틀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사실¹³⁾은 이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이다.

그렇다면 중세 사회에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어떤 점에서 소용을 가졌는가?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바 있거니와 중세의 리터러시가 지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리터러시(social literacy)’를 분명하게 표방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조희정, 2002) 이 때 사회적 리터러시란 “공공적 의사소통 맥락과 사적 의사소통 맥락의 상호관계 속에서 주체에게 형성되는 문해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사회적 리터러시는 ‘한 사회의 공공적 영역의 의사소통을 위해 개인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지배적 문해력(dominant literacy)’과 ‘개인들이 지배적 문해력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생성적 문해력(generative literacy)’으로 구성된다.(조희정, 2002)

그런데 동시대의 공공적 의사소통 맥락에서 발언하기 위해 요청되는

12) 中叟(1908), 자세한 내용은 조희정(2003c: 511-512) 참조.

13) 조선 초기 과거 시험과 관련한 강경-제술 논쟁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리터러시가 바로 이 고전 리터러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리터러시를 평가의 중요 요소로 간주했던 과거(科擧) 시험의 1차 시험에서는 항상 고전 경전에 대한 이해가 평가 대상이었다는 점과, 글쓰기 시험이었던 2·3차 시험에서도 고전의 인용은 평가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이었다는 점¹⁴⁾은 사회적 리터러시가 고전 리터러시에 의존할 때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를 드러낸다.

지배적 리터러시와 생성적 리터러시 개념에 기반하여 고전 리터러시의 위상을 설명하자면 고전 리터러시는 지배적 리터러시의 전반을 차지하며, 생성적 리터러시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자 실마리였다. 이때 고전 리터러시가 생성적 리터러시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자 실마리라는 점에서 고전 리터러시가 동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기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시험의 3차 시험이었던 책문(策文)은 동시대에 직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묻는 임금의 질문에 수험생이 답변하는 의사소통 양식 이었는데, 이 경우 고전에 대한 이해야말로 동시대의 과제에 답변하기 위한 관건으로 작용하였다. 조희정(2002)은 책문(策文)의 특징을 '문제 발견적 글쓰기'라 규정한 바 있는데, 문제 발견의 과정과 문제 확장의 과정은 고전에 대한 해석을 동반할 때 가능한 일이었다.¹⁵⁾

이와 같이 '고전'이야말로 동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통로라는 관점은 고전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세계관이다. 아니 고전 리터러시에 의거하지 않을 때, 동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은 요원하다는 것이 고전 리터러시를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으로 간주한 시대의 세계관이었다. 결국 고전 리터러시는 문자의 기능적 쓰임에 함몰된 능력에 그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전이 운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활용 능력'

14)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그러했다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과거 시험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조선 전기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세종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은 조희정(2002)을 참고할 것.

15) 조희정(2002), 4장을 참고할 것.

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전문학 리터러시로 전이

고전 리터러시가 언제까지고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까지 리터러시 능력의 핵심에 해당하던 고전 리터러시는 리터러시의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은 근대 계몽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리터러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근대계몽기 들어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변화한다. ‘국민’의 ‘읽고 쓰는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은 원칙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기 문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는 중세의 리터러시 능력이 식자층의 징표로 간주되었고, 특정 계급의 소유물로 특권화되었던 것에 반(反)하는 상황이다. 근대의 리터러시 능력은 이론상으로는 국가 전체의 구성원들이 소유해야 하는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국민 전체의 리터러시가 중시되면서 나라의 글(國文)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익히기 쉽다는 점에서 한글이 주목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표기 수단으로 한글이 주목받으면서 고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고전 리터러시는 부정되기 시작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근대계몽기 들어 근대적 형태의 ‘교과’ 개념이 적극 제안되었으며 그 속에서 리터러시가 다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교과란 분과 체제에 기반한 교육적 접근의 가치를 인정된 것으로 중세와는 달리 교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특화된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다. 1) 교육 목표의 세분화 2) 교과 재료의 선택 3) 과학적인 교수 등의 전제에 기반한 근대적 ‘교과’ 개념에 따라 중세의 교육은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다.(조희정, 2003a)

이에 교재명이 교과명을 대표하던 중세의 교육 방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리터러시는 교육 전체의 목표가 아니라 특정 교과의 중심 목표로 간주되었는데, 리터러시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삼은 교과는 언어과, 나아가 국어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리터러시의 강조점은 '고전 리터러시'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그 점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에 인용한 1910년(隆熙 4년) 학부에서 편찬한 『보통 교육학』 중 '국어급한문과교수법' 부분의 첫 머리 '1. 교수의 요지' 부분을 검토한다.

國語及漢文은 日常須知의 言語文章을 知케호야 正確히 思想을 表出호는 能力을 養호고 兼호야 智德을 啓發호으로써 實地로 하나니라(普通學校令 施行規則 第八條 第二號 第一項 參照)

是以로 此科에는 爲先 (一) 普通으로 行호는 我國의 文字文章을 教호고 此로 書寫호는 事項을 正確히 讀호야 此를 解得케호는 事 (二) 正確히 談話호는 事와 正確히 記호는 事를 教호야 自己의 思想을 他人에게 傳達호는 事에 熟練케호고 尙且 (三) 實際生活에 必須호는 知識을 教與호야 常識과 德性을 涵養호는 事等의 三要點을 務盡호여야 홀지니라

第一과 第二의 要點을 盡하기 爲하여 讀法, 綴法, 書法을 課호는 者이라 讀法은 文字文章을 讀호는 能力과 言語로 自己思想을 言表호는 能力을 養호고 綴法은 文字文章을 用호야 自己의 思想을 書寫호는 能力을 養호고 書法은 文字를 正確明瞭迅速히 書호는 能力을 養호는 者이라 然而第三의 要點에 至호야는 國語漢文科의 材料로 修身, 地理, 歷史, 理科 其他日常의 生活에 必須호는 知識을 教授호는 者이니 此로 其目的을 達호하나니라(普通學校令 施行規則 第八條 第二號 第二項 參照) (띄어쓰기는 필자).¹⁶⁾

'국어 및 한문' 교수 요지를 밝혀놓은 위 인용문은 1906년 8월 27일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기초하고 있다. 국어과의 목표로 삼은 것은 "일상 생활에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언어와 문장(日常須知의 言語文章)"임을 첫 머리에 명시함으로써 보통 국민의 일상 생활에 소용되는, 일상의 언어와 문장에 대한 리터러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일상 언어와 문장이란 곧 "普通으로 行호는 我國의 文字文章"이라 하여 일상 언어 리터러시는 곧 모국어 리터러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모국어 리터러시란 "正確히 談話호는 事와 正確히 記호는 事"라 하여 기존의 리터러

16) 학부 편찬(1910), 『보통 교육학』, 한국정부인쇄국인쇄, 45-47쪽. 자료를 제공해주신 김중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시에서 중시되었던 문어(文語) 구사 능력과 함께 구어(口語) 구사 능력이 동시적으로 중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근대계몽기에 새삼 새롭게 주목받은 리터러시 개념은 ‘모(국)어 리터러시’와 ‘일상 언어의 리터러시’로 압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터러시 개념은 모국어로 글을 읽고 쓰기 위한 독서법이나 작문법 등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법적 지식의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¹⁷⁾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중세 사회에서 중시되었던 고전 리터러시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까?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근대적 형태의 교과를 제창했던 장웅진이 ‘言語科(國語及外國語)’의 특성으로 거론한, 다음과 같은 발언은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今日普通教育을 施하는 學校에서 程度의 如何를 不問하고 一般自國語로 中心을 삼는 것은 世界各國이 一般이라 古昔人道主義가 復興할 時代에는 古語를 研究하야 古人의 遺書를 理解함으로써 惟務하고 外國語를 自國語보다 多리히 尊重히 用 弊端이 有하였으나. (張膺震, 1907 / 띄어쓰기는 필자)

근대계몽기 보통학교의 언어과에서 자국어 교육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언어 교육 방식을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는 ‘옛말(古語)’를 연구하는 것이며, ‘옛 사람(古人)이 남긴 서적을 이해’하는 데에만 힘쓰는 것이며, 자국어보다도 ‘외국어’를 더 존중하는 사례로 폄하된 채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근대 계몽기에 요청되었던 리터러시 현상 속에서 ‘고전성’은 거세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모(국)어 리터러시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좀더 복합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근대계몽기에 리터러시의 무게 중심은 일상에서 소용되는 모(국)어 리터러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1910년 합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었던 일상 언어 리터러시의 지

17) 자세한 내용은 조희정(2003c) 참조.

위는 일본어 리터러시가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도 모(국)어 리터러시 부분은 축소되고 일본어 리터러시가 강조되었다. 일본어 리터러시와 모(국)어 리터러시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쓴다'는 점에서 상위 단계인 보편 리터러시의 성격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¹⁸⁾되었고 그로부터 학교에서의 일본어 교육과 조선어 교육 사이에는 교육 방법이나 교재 구성 등의 공유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는 방법론 차원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1910년대를 전후한 작문 교과서¹⁹⁾에서는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에서 중시되었던 '다독다작(多讀多作)', '모범문 중시' 등의 특징이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으며 고전 리터러시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 중시되었던 시학이 '인용법', '대구법' 등으로 정의되어 직유법과 은유법 등의 수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²⁰⁾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가 텍스트 자체에 대한 독해와 쓰는 능력을 넘어 '고전이 운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활용 능력'으로 간주되었다면 근대계몽기로 넘어오면서 고전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함의는 사라진 상태에서 고전 리터러시에서 요구되었던 방법론적 측면만이 남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법론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터러시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고전 리터러시는 이제 특정 분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의 특정 분야가 곧 '고전문학 리터러시'이다. 문사철(文史哲)을 아우르는 포괄적 인문 교양을 대표하던 고전 리터러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 내 '언어과'라는 특정 교과와 한 분야로 축소된 것이다.

고전문학 리터러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전문학'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근대적 관점의 문학 개념에 따라 선별된 '고전문학'이라는

18) 자세한 내용은 조희정(2003b) 참조.

19) 崔在學(1908), 『文章指南』, 徽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崔在學(1909), 『實地應用作文法』, 徽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覺鍾(1912), 『實用作文法』, 博文書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7년본); 李鍾麟(1913), 『文章禮法』, 普書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0) 자세한 분석은 조희정(2002) 참조.

범주에 기반할 때,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세와는 다른 '고전문학'의 목록이 결정되어야 했다. 1910년대 《소년》, 《청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국)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은 순국문으로 기록된 고전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전문학'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작품군은 시조였다. 톨쓰토이, 빅토르 위고, 바이런, 테니슨, 엘리엇 등의 작품과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표류기, 이솝우화, '투로이로프 비유담' 등의 서구 고전을 소개하는 이면²¹⁾에서 시조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전 문학 체계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시조는 1917년 일제강점기의 중등 사립학교 조선어 수업 교재로 다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²²⁾ 반면 총독부가 관장하던 보통학교와 중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는 시조가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니²³⁾ 고전문학 체계의 형성은 주로 민간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²⁴⁾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중세 사회의 리터러시 현상 중 핵심에 해당했던 '고전 리터러시'는 일상 언어 리터러시로 대체되었기에 모(국)어 리터러시와 일본어 리터러시 능력 등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고전 리터러시'는 근대적인 문학 개념으로 건인된 고전문학 리터러시로 축소되면서 고전문학을 통해 동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이라는 의미의 고전 리터러시의 의의는 부정되기 시작했다.

21) 《소년》, 《청춘》 제1호, 제6-9호 등 다수.

22) "학교방문기-중앙학교 편", 《청춘》 제8호, 1917년 6월 16일.

2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교과서 중 시조를 다룬 단원은 1924년 『신편고등조선어급한문』 권2의 〈시조삼수〉가 유일하다. 조선총독부(1913),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권1-4.;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五, 大正13年(1924년).

24) 민간 학회 차원이나 개인 차원의 '시조'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 시조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국문학의 연구 성과로 대신한다. 근대 문학의 관점 속에서 고전문학 연구가 국문학의 근간으로 형성되는 과정은 류준필(1998) 참조.

3. 고전문학 리터러시의 화석화

1945년 해방 직후 국어교육 내에서 모국어 리터러시의 습득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모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서구의 현대적 개념에 부합하는 리터러시 교육이 교육과정으로 명시되고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강조된 것은 한글 철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었다. 이를 위하여 1945년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하고 군정청학무국에서 발행한 『한글첫걸음』을 비롯하여 모국어 리터러시를 위한 교재가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²⁵⁾

그렇다면 모국어 리터러시가 본격화된 가운데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과연 어떤 위상을 점하고 있었을까?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해방 직후 국어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부상하였다. 일제 강점기와는 달리 해방 이후에는 초등 교육 단계부터 고전문학이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1946년 『초등 국어교본』 하권²⁶⁾ 7과에서 “여보오,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늙기도 설워라커든, 짐을조차 지실까”와 같은 교훈적 내용의 시조 3수를 필두로 같은 책 20과에서 시조 4수, 1947년 『초등국어6-1』²⁷⁾ 26과 시조 3수, 1949년 『초등국어6-2』²⁸⁾ 10과 시조 3수, 1950년 『초등국어5-1』²⁹⁾ 25과의 시조 3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은 중등학교 입학 시험의 주요 평가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당시 국어과 문항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은 철자법과 낱말 해석 문항이었다.³⁰⁾ 철자법으로 대표되는 문법 교육과 시조로 대표되는 고전 교육이 평가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

25) 해방 직후 국어과 관련 교재의 목록은 김혜정(2003: 165-166) 참조.

26) 조선어학회 저(1946년), 『초등 국어교본』 하권(5, 6학년용), 군정청 학무국 발행.

27) 군정청문교부(1947), 『초등국어6-1』, 군정청문교부 발행.

28) 문교부(1949), 『초등국어6-2』, 문교부 발행.

29) 문교부(1950), 『초등국어5-1』, 문교부 발행 재판.

30) 윤태영은 1949년 중학교 시험 문항 중 철자법 문항이 92개, 낱말 해석 문항이 152개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중복이 많은 분류이다. 윤태영(1949) 참조.

며, 고전 교육의 경우 고어(古語)의 뜻풀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입시에서 요청되었던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맥락이 거세된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고전 작품의 배경 지식이 화석화된 지식의 형태로 학습자들에게 다가갔다. 특히 평가 방식과 맞물리면서 화석화된 지식에 대한 암기의 방식을 유도하고, 또한 암기의 방식은 다시 지식의 화석화를 초래하는 순환에 빠지게 되었다.(조희정, 2004b: 114-118)

해방 이후 중등학교 교육 내용의 상당 부분도 고전문학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있었다.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 내용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였다. 1958년부터 발행된 학회지 『국어교육』에는 중등학교 현장에서 소용되는 국어과 관계 서적의 광고가 종종 등장하는데 특히 1964년 구본혁(1964)의 “고교 국어과 관계 서적에 나타난 한자 일람” 논문을 통해 당시 고등학교 국어과에서 활용되었던 국어과 관계 서적(고문, 교과서, 현대문, 참고서)을 확인할 수 있다.

번호	저자명	서적명	출판년도
1	조운제	고대문감	1949
2	장지영	가려뽑은 옛글	1943
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우리옛글	1958
4	구자균, 이재수	국문정선	1954
5	이병기, 정인승	표준 옛글	
6	방중현, 김형규	문학독본	1952
7	양주동	상주국문학교전독본	1948
8	정태진	고어독본	1947
9	구본혁외	정선고전문학독본	1964
10	장만영	고등문예독본	1953
11	장운제	문예독본	1931
1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종합고등국어	1958
13	이훈중	국어의 연구	1958
14	남광우	고교국어	1957

15	최근학	종합완성국문해석법	1958
16	신기철	표준국문해석법	1953
17	신영철	고문신석	1949
18	유창순	고문해석법	1955

〔표1〕 1964년 고등학교 국어과 관계 서적

18종의 서적 중 제목에서 고문(古文) 관련 서적임을 명시한 것이 9종이며, 독본류의 경우 대체로 고문이 다수의 제재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론된 대부분의 서적은 고문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논문의 의도가 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소용되는 한자를 일람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한자가 많이 수록된 서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고전문학이나 고문법을 특화시켜 다룬 서적의 수가 상당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서적들이 중시되었던 것은 대학 입학 시험 중 고문(古文)에 대한 이해가 중시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고문에 치중된 평가는 문제적 상황으로 거듭 지적되었다.³¹⁾

이는 곧 고전문학 리터러시아말로 국어교육이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리터러시로 간주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고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고전은 ‘옛 것(the classic)’과 ‘정전[canon]’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두 가지 내포가 결합되어 고전을 구성하지만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는 그 중 ‘정전[canon]’의 의미를 전제한 것이라면 근대 이후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중세까지 인정되던 ‘정전[canon]’의 의미보다는 ‘옛 것(the classic)’의 내포가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에는 모국어 리터러시가 원칙적으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리터러시 배양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고전문학을 전면 배치한 고문(古文)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낱말 해독이나 저자, 배경 지식 등을 중시하는 화석화된 지식의 모습을 띠

31) 송재주(1963), 고창식(1963), 조문제(1963), 좌담회(1963), 편집부(1963), 편집부(1966), 참조.

있기에 고전문학 리터러시와 일상 언어를 위한 모국어 리터러시의 상관성은 진지하게 되물어지지 않았다.

IV.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

이제 고전문학 리터러시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그 물음을 문학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다시 설정하는 것은 앞서 고전 리터러시 현상의 변이 과정중 특정한 상황, 즉 근대계몽기 이후 근대적인 문학 개념 속으로 포섭된 상태를 여전히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문학 리터러시란 고전 리터러시가 취할 수 있는 역사적인 관점 중 하나일 뿐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리터러시 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고전문학 리터러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고전문학 리터러시가 아니라 고전 리터러시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경우 고전 리터러시란 고전문학 리터러시와는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가? 고전 리터러시는 모(국)어 리터러시라는 리터러시 일반의 목표와는 어떤 관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시도에 대해 고전 리터러시의 시대가 가고 고전문학 리터러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자연스러운 역사적 변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리터러시를 새삼 거론하는 것을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는 반론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문학' 개념의 영향을 받은 고전문학 리터러시가 축소되고 응색한 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전 리터러시가 보다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독려되었던 시기의 고전 리터러시의 특성과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활로의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4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전문학 리터러시'가 '고전 리터러시'이어야 하는 이유를 검토하며 '고전 리터러시'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로 한다.

우선 고전문학 리터러시가 아니라 고전 리터러시로 관점을 변화시킨다면 근대적인 '문학'의 잣대로는 모두 포괄할 수 없는 고전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조희정 외, 2004: 280-285) 이것은 일차적으로 '문학'이라는 범주로 수렴되지 않는 수많은 고전 텍스트를 교육의 자료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중세 고전 리터러시의 특징은 고전 텍스트가 운용되는 맥락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중세 사회에서 고전 리터러시가 리터러시의 중심 분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전을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해 진입하는 세계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능력의 획득은 그 세계로의 진입을 허용받았음을 의미하였다. 그 세계에 진입할 때만이 동시대의 의사소통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리터러시를 문제삼는 것은 텍스트를 넘어서 텍스트가 운용되고 발현되는 맥락에 대한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고전 리터러시는 '문학'이라는 프리즘 속에 고전 텍스트를 가두지 않고 텍스트가 운용되고 발현되던 맥락을 이해하고 또한 지금 현재 내가 처한 맥락에 고전 텍스트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주목할 때 획득될 수 있다.

앞서 이것을 생성적 리터러시라 명명한바, 생성적 리터러시는 '문제 발견'에서 비롯한다. 문제 발견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의 형태로 시작되는데 고전 리터러시에 기반한다면 어떤 체험이 가능한가가 관건적 요소이다.

그것의 한 가지로 사례로 조선 세종조 책문(策文)에서 드러난 생성적 리터러시를 살펴보자. 책문의 경우 고전은 문제적 상황을 발견하기 위한 문제틀로 작용하였다. 고전을 통해 현재의 내가 직면한 상황을 조회(照會)함으로써 문제적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고전으로부터 유도되는 문제틀은 정답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동시대에 발생한 문제를 좀더 상위 차원으로 치환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문제의 확장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인용하는 다양한 고전의 사례들은 보편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고전 리터러시는 고전에 대한 조회(照會)를 통해 문제들을 찾아내는 문제 발견의 능력과 고전 속에서 현재의 문제와 비교 가능한 구체적인 해석을 찾아 인용할 수 있는 문제 확장의 능력으로 다시 세분화된다.(조희정, 2002 참조)

논의의 구체화를 위해 《삼국유사》 읽기와 쓰기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2004년 1학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고전문학과 고전교육 연구' 시간에 수강생이 제출한 수업 결과물 중 일부이다. 수업의 진행 방법은 이렇다. 수강생들은 《삼국유사》를 읽고 난 후 매 시간 에세이를 제출하였다. 《삼국유사》 일독이 끝난 후, 파트너를 설정하여 에세이와 수업 시간의 토론을 토대로 파트너에 대한 분석의 글을 쓰고 종강 시간에는 자신이 쓴 에세이와 파트너의 분석을 토대로 삼아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³²⁾

이러한 수업 방식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수업 전반부에 《삼국유사》일독 후 써온 에세이가 지닌 문제점은 글을 쓰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취하거나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였다. 수강생들은 대체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고전을 통해 '현재의 나'를 조회(照會)하는 것 자체를 낯설어 했다.

그러나 수업의 중반부에 진입하면서 비로소 수강생의 에세이에서는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중 두 편의 에세이만을 제시해본다.

에세이A-1 : (전략) 아도가 불법을 신라에 전달할 때 세상에서 듣도 보지

32) 여기서는 결과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리를 달리하여 상세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고전 리터러시의 한 가지 사례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이 자리를 빌려 결과물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수강생들에게 감사드린다.

못한 일이라 의심하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그가 가는 길에 대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갔다. 또 미추왕이 죽고 법사를 해치려할 때 법사가 모록의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문을 닫고 목숨을 끊어 자신의 불법에 대한 자신의 사상과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백죽화상 담사가 불교를 전파하려고 할 때 그는 목숨을 내걸었다. 이차돈의 순교도 그렇다. 신라에 불교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데 거침없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내적 괴로움이 없었을까. 생에 대한 미련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으리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에 추앙받고 있는 것 아닌가. 사상이 한 인간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위력을 또 한번 느낀다.

이야기를 돌려 우리 아버지를 보자. 우리 아버지. 정말 일생동안 흠만 파고 돌아가셨다. 단지 당신의 못 배움에 대한 한과 가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흠과 투쟁하였다. 그 길만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신 것이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나? 돈을 벌기 위해, 그래서 자식들을 더 잘 키워보겠다고 내린 결정이란 게 시골 구석에서 당신을 내던지고, 자신의 삶을 접고 오로지 흠과 싸운 것이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오로지 자식들의 미래에 희망을 담은 삶이 아도와 법사와 담사와 이차돈보다 무슨 부족함이 있는가. 이차돈이 불법을 믿고 세상에 조그마한 밑알이 되고자 했을 때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아버지가 내린 것이란 이 정도였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한 것이 흠에서 난 목숨 흠에서 죽어야 한다고 내리신 것은 아닐까? 내 자식들에게 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나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물음에 아버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 모든 것을 내던진 순교자적인 아버지의 삶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을텐데 내 기대치에 아이들을 맞춰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내 마음을 자식들이 안다면 어떨까? 나쁜 아빠라고 비웃을까?

(중략)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되 자신의 삶에서 한치의 흔들림없이 불법을 설파하는 부처의 모습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 과시하지 않았고, 내가 이만하니까 너희들도 이만하거라 하지도 않았으며, 묵묵히 자신이 옳다고 결정한 그 길을 가셨다. 그렇게 내 속에 투영되어 있는 아버지. 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삶의 무게를 한층 버겁게 하는 것 같다.(후략)³³⁾

에세이A는 사상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의 삶을 보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에세이A의 필자가 《삼국유사》 〈홍법〉과 〈탐상〉 부분을 읽으며 떠올린 문제적 상황은 '순교'이다. 그리고 필자에게 이차돈의 순교는 자식들을 위해 순교자적 삶을 택한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다.

에세이A의 필자는 34세로 교직 8년 차의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이며 부부 교사로 남매를 두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에세이A의 필자는 다른 에세이에서 《삼국유사》가 주로 “왕이나 성인 중심의 기술이다 보니 백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종 지적하였지만 《삼국유사》를 통해 자신을 조회하는 경우는 주로 성인의 삶이나 시선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에세이A 필자의 고민은 주로 자신이 처한 현실 - 가장, 남편, 아들, 교사 - 등의 상황과 그 속에서 맞닥뜨리는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에세이A의 필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에세이A-2 :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인들이 나를 지켜본다면 구제할 증생을 하나 더는 것이겠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마냥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며 내 신념과 의지, 양심을 꺾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성인들처럼 달관된 삶을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잘못 받아들이면 달관이라는 것을, 세상 현실로부터 도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³⁴⁾

자기 분석의 에세이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세이A-3 : 내가 책을 읽을 때, 특히 동화책을 읽을 때 『삼국유사』를 읽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텍스트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들여다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삼국유사』 속 옛 이야기를 읽으며, 이처럼 '나'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³⁵⁾

33) ○○○, “어떻게 살 것인가”, 2004년 4월 22일자 에세이.

34) ○○○, “○○○, 나를 밝힌다!”, 2004년 6월 3일자 에세이.

35) ○○○, “○○○, 나를 밝힌다!”, 2004년 6월 3일자 에세이.

앞서 거론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삼국유사》가 아니어도 항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독해 과정에서 유독 현실과 이상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성인들의 삶이라는 《삼국유사》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게 되고, 그로부터 아버지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조회하고 그 과정에서 성인의 삶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는 모습은 '고전을 통해 현재의 나를 조회한다'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른 에세이를 살펴보자.

에세이B-1 : (전략) 삼국유사 탐상 제4에 실려 있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선택의 문제였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불교의 진리를 얻고자 세속을 버리고 수도에 정진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밤 아름다운 남자 하나가 두 사람의 암자에 차례로 찾아와서 자기 가기를 간청하였다. 박박은 여인의 간청을 육욕의 유혹이라 여겨 거절하였다. 박박에게 중요한 것은 수도자로서 지켜야 할 엄중한 계율인 것이다. 그러나 부득은 남자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녀의 이상스런 간청까지 모두 들어준다. 그는 왜 그녀의 청을 모두 들어주었을까? 너무나 이상스럽고 또한 위험한 청을, 박박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수도자의 계율을 쉬어 어지럽힐 만한 청이 아닌가. 그러나 부득은 여인에 대한 연민을 부처의 계율보다 중하게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승려의 몸으로 여인의 해산을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주며, 심지어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담가 목욕까지 한 것이다. 계율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보다 여인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부득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이다. 그 선택의 결과 그는 여인이 관음보살의 현신임을 알게 되고, 그 자신 역시 성불하게 되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중략) 처음에는 논리적인, 그래서 별 의문의 여지가 없을 법한 해석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텍스트 밖 현실세계로 끄집어 내 보면 슬그머니 생기는 의구심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이야기에서는 부득이 먼저 성불을 하게 되었지만 박박의 선택이 그르다 말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세계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박박이 성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존재하고, 때

로는 그 유혹이 너무나 설득력있는 것일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 그 유혹을 애초에 단호하게 뿌리친 박박의 태도가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더 훌륭해보인다.

반면 여인을 대하는 부득의 태도에서 보이는 주저함과 부끄러움은 나의 의구심을 더욱 부추긴다. 처음에 여인을 받아들일 때만 해도 부득에게서는 불도 자에게서 풍기는 무념무상의 태도가 돋보였다. 그러나 여인이 해산을 하고 목욕시켜 주기를 청했을 때의 부득의 심리는 속세의 욕망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을까? 부득은 갈수록 마음의 평정을 잃고 지극히 인간적인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 보였다. 어쩐지 그의 자비심보다는 그 모든 망설임과 혼란, 욕망을 용케 이겨냈다는 점에 더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의 이야기라면 그는 파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후략)³⁶⁾

에세이B의 필자는 《삼국유사》〈답상〉의 '노힐부득 달달박박' 부분에서 "유혹과 선택"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발견한 후,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각각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에세이B의 필자는 5년차 초등학교 기혼의 무자녀 여교사이다. 학기초 전보 발령을 받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다소 힘들어 하였으며, 그로 인해 초반부의 과제는 자신의 견해보다는 학계의 정설을 옮겨 오는 경우가 많았다.

에세이B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작성된 에세이 중 하나이다. 선택은 필자의 항상적인 관심사였음을 학기말 자아분석 에세이에서 밝히고 있는데, 대학 진학, 임용고시 과정, 교사 발령 과정이 모두 현재의 자신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선택 상황이었다고 털어 놓는다. 에세이B-1에 대한 필자의 메타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에세이B-2 : (전략)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는 삼국유사 답상 편의 가장 강한 느낌을 주었다. 읽는 순간 에세이의 주제를 이것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다. (중략)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는 선택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항상 선택의 다른 결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 (중략)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에는 변수가 많다. 선택의 순

36) △△△, "선택의 기로". 2004년 4월 29일자 에세이.

간에 항상 자신의 기준에 맞게 올곧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 인생에 있어 뚜렷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의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럽다. 특히 개인적인 문제보다 교육자로서 택해야 하는 선택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다.(후략)³⁷⁾

앞서 인용한 에세이 A와 B는 고전 리터러시의 중요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의 구체적인 모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구체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때 조회(照會)의 모습은 《삼국유사》 텍스트와 현재의 나 사이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문제적 상황, 즉 순교와 선택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찾아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차이점 - 이차돈의 순교와 아버지의 순교의 차이, 순교적 태도가 자식에게 미친 영향 /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선택과 내가 판단하는 선택과 유혹의 문제 -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고전과 내가 처한 상황이 만날 수 있는 상위 코드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비교가 진행될 때,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가 가능하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³⁸⁾

물론 고전 리터러시를 '고전이 운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활용 능력'이라고 할 때, 위에서 인용한 두 편의 에세이는 '고전이 운용되는 맥락' 자체에 대한 이해에는 다소 소홀한 바가 없지 않다. 그리고 문제를 확장하기 위해 고전을 인용하는 사례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자신이 처해있는 맥락에 대한 고려는 사적 맥락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적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고려로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³⁹⁾

37) △△△, "나에게로의 초대", 2004년 6월 3일자 에세이.

38)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가 고전문학을 통한 조회가 무엇이 다르냐는 반론을 예상할 수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고전을 통한 조회라고 명명하는 것은 선택된 제재가 고전문학이나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적어도 고전 제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소모적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39) 물론 이 두 편의 에세이와 책문(策文)의 분석을 통해 찾아낸 문제발견적 글쓰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첫째, 책문(策文)은 세종조 과거(科擧)에서 최고의 수준을 드러낸 글이라는 점, 둘째, 책문(策文)은 책문(策問)과 대책(對策)으로 구성된 과제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두 편의 에세이의 한계는 곧 두 명의 에세이 필자가 이후 고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전을 통한 동시대의 조희(照會)를 통해 문제적 상황 발견하기, 비교의 방법을 위해 고전을 인용함으로써 문제 확장하기, 고전이 운용되었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가 처한 사적 의사소통 맥락과 공공적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세이A와 B의 성취는 꼼꼼 따져보아야 할 성취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고전을 통한 조희의 단초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라는 요구에 응답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졌다.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문제적 상황만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나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에 주목하면서 고전을 통한 조희는 가능해졌다. 즉, 자신이 접속하는 텍스트와 내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동일 코드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고전을 통한 조희의 관건적 측면이다.

둘째,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전제 중 하나가 연속적 글쓰기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에세이 A와 B는 필자의 문제적 상황이 잘 드러난 부분을 인용해놓은 것일 뿐이다. 학기말에 시도한 자기 분석 에세이가 가능했던 것은 연속적 글쓰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난 자신의 문제적 상황이었다. 수강생들이 자기 분석 에세이에서 공통적으로 토로한 것이지만 자신의 문제적 상황은 필자가 미리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연속적 글쓰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필자에게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된 경우가 많았다.

제시형 글쓰기에 해당한다면, 에세이는 자유논술형 글쓰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고전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하기 위해 중세부터 근대까지 '고전 리터러시(Literacy)'의 현상적 변이를 대략적으로 추적하고자 하였다. 중세의 리터러시는 개념이 아닌 현상으로 존재하였기에 지금까지 상당 부분 폄하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로 인해 중세의 리터러시는 서구의 행동주의 심리학과 유사한 내용으로 간주되어 비판받아 왔는데, 그러한 비판은 중세 리터러시의 본질을 겨냥한 비판이라 보기 어렵다. 그보다 중세 리터러시의 본질적 특성은 '고전 리터러시'라고 보아야 한다. '고전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개념 규정할 수 있는 고전 리터러시는 중세의 리터러시 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는 상고적(尙古的) 취향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이것 역시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의 일면적 특성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조희정, 2002: 67-68 참조) 고전 리터러시의 핵심은 '옛 것' 그 자체에만 있다기보다는 옛 것을 통해 동시대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으며, 동시대의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전 리터러시 현상은 근대계몽기에 서구에서 '리터러시' 현상이 본격 도입되면서 '고전문학 리터러시'로 축소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의 '문학' 개념에 영향을 받으면서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으로 한정된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해방 직후 국어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 국어교육의 중심 내용을 차지했던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모국어 리터러시'라는 서구 현대의 리터러시 개념이 적극 도입되면서 국어교육의 정체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국어교육의 6분류 체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중 문학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전문학 리터러시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의미

에서의 고전 리터러시, 즉 '고전이 운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활용 능력'의 회복을 제안하였으며 그것의 일례로 《삼국유사》를 읽은 이후 작성한 에세이에서 드러나는 '고전을 통한 조희(照會)'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리터러시 논의를 중세로까지 확장함으로써 모(국)어 리터러시로 한정되지 않는 리터러시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그로부터 중세에 중시되었던 고전 리터러시의 현재적 변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대한 시대를 검토함으로 인해 세부 내용에서 많은 논리적 비약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이 의도했던 지점은 고전 리터러시 변화 양상의 전반적인 구도를 그리는 것에 있었기에 많은 논리적 약점을 고스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고전 리터러시의 적용을 제창하기 위해서 좀더 섬세한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음 기회를 기약한다.*

* 본 논문은 2004. 10. 29. 투고되었으며, 2004. 11.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4. 11.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 문헌

〈자료〉

- 《삼국유사》, 『太極學報』
학부 편찬(1910), 『보통 교육학』, 한국정부인쇄국인쇄.
崔在學(1908), 『文章指南』, 徵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崔在學(1909), 『實地應用作文法』, 徵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覺鍾(1912), 『實用作文法』, 博文書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7년본).
李鍾麟(1913), 『文章體法』, 普書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소년》, 《청춘》
조선총독부(1913),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권1-4.
조선총독부(1924),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五.
조선어학회 저(1946년), 『초등 국어교본』 하권(5, 6학년용), 군정청 학무국 발행.
군정청문교부(1947), 『초등국어6-1』, 군정청문교부 발행.
문교부(1949), 『초등국어6-2』, 문교부 발행.
문교부(1950), 『초등국어5-1』, 문교부 발행 재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년 1학기 '고전문학과 고전교육 연구' 수강생들의 에세이.

〈논문〉

- 고창식(1963), "63년 국어과 고교입시 감상", 『국어교육』 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곽춘옥(2003), "문식성 학습과 평가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국어교육학연구』 18집, 국어교육학회.
구본혁(1964), "고교 국어과 관계 서적에 나타난 한자 일람", 『국어교육』 8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김명순(2003), "문식력 개념의 변화 양상과 재개념화 방향", 『국어교육』 110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김 영(2003), "실학파의 독서관", 『독서연구』 10호, 한국독서학회.
김왕규(2003), "16세기 사림파의 독서에 대한 담론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 국면", 『독서연구』 10호, 한국독서학회.
김종철(2003), "근대 초기의 독서론", 『독서연구』 10호, 한국독서학회.

- 김혜정(2003),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 18집.
- 류준필(1998),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조윤제·김태준·이병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 박수자(2003), “21세기 문식력과 국어과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10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박영목(2003),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10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박인기(2002),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집, 국어교육학회.
- 송재주(1963), “63년 국가고사 및 서울 대학국어과문제를 보고”, 『국어교육』 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윤대영(1949), “국어교육과 중학교 입시문제”, 『새교육』 제5호.
- 이기훈(2001),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1920년대의 책읽기”, 『역사문제연구』 제7집.
- 이재기(2001), “주체,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2집, 국어교육학회.
- 임경순(2002), “비평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쓰기 교육-평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5집, 국어교육학회.
- 조문제(1963), “63년 중학입시 국어문제에 대한 소감”, 『국어교육』 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조희정(1999), “창의적 글쓰기와 전범 텍스트 학습의 상관성”, 『국어교육』 100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2002),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_____(2003a),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서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6집.
- _____(2003b), “1910년대 국어(조선어)교육의 식민지적 근대성”, 『국어교육학연구』 제18집.
- _____(2003c), “근대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특성”, 『국어교육연구』 제1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04a), “근현대 국어교육연구 전개양상(1) - 학회지 수록 논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3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04b), “사회적 문해력 교육 구안을 위한 역사적 고찰 - 해방 이후 국어교육 내 '사회성' 검토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3호, 문학교육학회.
- 좌담회(1963), “각급학교 국어과입시문제의 회고와 전망”, 『국어교육』 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진재교(2003), “경화세족의 독서성향과 문화비평 - 19세기 흥석주가의 경우”, 『독서연구』 10호, 한국독서학회.

- 최인자(2002), “다중문식성과 언어문화교육”, 『국어교육』 109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최태원(2001), “번안소설·미디어·대중성-1910년대 소설독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 연구소 2001년 6월 2차 발표회 발표 요지.
편집부(1963), “1964년도 대학입시 국어과 출제 전망”, 『국어교육』 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편집부(1966), “대학입시 「국어」 출제의 원칙과 방법”, 『국어교육』 12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단행본〉

-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소.
노명완·이차숙(2002), 『문식성 연구』, 박이정출판사.
박봉배(1987), 『한국국어교육전사』 상·중·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
장파(1999), 유중하 외 옮김, 『동양,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조희정 외(2004), 『대답한 책읽기』, 퍼스웍/이가서.
천정환(2003),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최현섭 외(2000), 『국어교육학개론』 제2판, 삼지원.

Beth Daniell(1998), Literacy-Orality Theories, Mary Lynch Kennedy (ed)
Theorizing Composition - A Critical Sourcebook of Theory and Scholarship
in Contemporary Composition Studies, Greenwood Press.

<초록>

고전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

- 근대적 변화 양상의 검토를 통해 -

조희정

본 논문은 고전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하기 위해 중세부터 근대까지 '고전 리터러시(Literacy)'의 현상적 변이를 대략적으로 추적하고자 하였다. 중세의 리터러시는 개념이 아닌 현상으로 존재하였기에 지금까지 상당 부분 폄하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로 인해 중세의 리터러시는 서구의 행동주의 심리학파와 유사한 내용으로 간주되어 비판받아 왔는데, 그러한 비판은 중세 리터러시의 본질을 겨냥한 비판이라 보기 어렵다. 그보다 중세 리터러시의 본질적 특성은 '고전 리터러시'라고 보아야 한다. '고전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개념 규정할 수 있는 고전 리터러시는 중세의 리터러시 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는 상고적(尙古的) 취향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이것 역시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의 일면적 특성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리터러시의 핵심은 '옛 것' 그 자체에만 있다기보다는 옛 것을 통해 동시대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으며, 동시대의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전 리터러시 현상은 근대계몽기에 서구에서 '리터러시' 현상이 본격 도입되면서 '고전문학 리터러시'로 축소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의 '문학' 개념에 영향을 받으면서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으로 한정된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해방 직후 국어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 국어교육의 중심 내용을 차지했던 고전문학 리터러시는 '모국어 리터러시'라는 서구 현대의 리터러시 개념이 적극 도입되면서 국어교육의 정체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국어교육의 6분류 체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중 문학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전문학 리터러시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고전 리터러시, 즉 '고전이 운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활용 능력'의 회

복을 제안하였으며 그것의 일례로 《삼국유사》를 읽고난 이후 작성한 에세이에서 드러나는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핵심어】 고전 리터러시(literacy), 현상으로서의 리터러시, 고전문학 리터러시, 고전을 통한 조회(照會)

〈Abstract〉

The New Planning for the Eudcation of Classical Literacy

Cho, Hee-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literacy as the important object of Korean education, to propose the new planning for educatio of classical literacy

In the Middle ages, the literacy existed as a phenomenon, not a concept. So the literacy of the middle ages were ignored in the Modern times. But the literacy of the middle ages charterized by classical literacy.

The claaical literacy was defined as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the classics. The essence of the classical literacy was to read the contemporary period through the classica, to practice the problem of the contemporary period.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lassical literacy as the ability of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the text and context of the classics, to take the exemple, the writer's correspondence to the classics shown in the essay after reading 《삼국유사》.

【key words】 classical literacy, literacy as a phenomenon, classical literature literacy, writer's correspondence to the classics